

뉴노멀시대의 내용 중심 온라인 외국어 수업 방향 탐색

-Zoom 화상회의 기반 난민전문 및
법정 통역인 연수를 중심으로*-

장니나

(부산외국어대학교)

《목 차》

1. 서론
2. 연구의 배경
 - 2.1. 온라인 수업의 방향
 - 2.2. 내용 중심 교수법(CBI)
 - 2.3. 다문화 사회와 난민
3. 연구 방법
 - 3.1. 연구 자료: 난민전문통역인과 법정통역인
 - 3.2. 분석 방법: 연수 프로그램
4. 연구 결과 및 논의
5. 결론

<Abstract>

Chang, ni-na. 2021. 10. 20. A study on the direction of online foreign language classes based on Content-based Language Teaching(CBI) in the new normal era -Focusing on the training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6084267).

of refugee professional interpreters and legal interpreters based on Zoom video conferencing.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9, 97-119.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online training program for refugee professional interpreters and legal interpreters, and to find out ways to enhance the method of remote collaboration that can be applied to online foreign language classes by accumulating research data that can be used in multicultural education. As a research background with the development of Edu-Tech where technology and education are combined and the online classroom environment due to COVID-19 becomes a new normal, a new approach to foreig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is required. In addition, recently, the Ministry of Justice prepared some amendments to the Refugee Act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fugee system, which are abuses for extension of stay and the prolongation of judicial procedures leading to refugee recognition review, objec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refugee application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by examining the case of the CBI approach in a way that interpreting classes are conducted while acquiring the contents necessary for a job, the direction that can be applied to the subject-centered classes for foreigners, such as interpreters who are learners who are proficient in the target language, was confirmed. Second, considering that the role of this study is to strengthen knowledge about refugee-related laws, policies, and judicial procedures as well as existing foreign residents in the training program for multicultural social integration experts, and to motivate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to become interpreter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Content-based Language Teaching(CBI), Online class, Zoom video conferencing, Refugee professional interpreters, Legal interpreters, Multicultural Social Integration, Refugee law

1. 서론

기술과 교육이 접목된 에듀테크(Edu-Tech)의 발전과 COVID-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환경이 뉴노멀이 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외국어 학습과 교수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예컨대 다중 언어 교육과 디지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언어와 내용을 총체적으로 습득하는 언어 사용자와 교수자 간의 원격 협업이 온라인 외국어 수업에서 필요한 교육 방법으로 전망되고 있다(Garbarino, S. & Olivier, Ch, 2020:24).

이러한 내용 중심 외국어 수업은 해당 외국어에 능통한 통역 수업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법이며 특히 새로운 온라인 외국어 수업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난민¹⁾의 언어를 통역하는 전문통역인²⁾을 대상으로 한 2020년에 각각 실시된 법무부와 법원의 다문화 사회통합 온라인 통역 연수 프로그램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축적하고 온라인 외국어 수업 환경에 도입될 수 있는 원격 협업의 방법을 내용 중심 접근법(Content-Based Instruction, CBI)에서 전망해 보는 것을 세부 목표로 두고 있다.

CBI는 관련 교과목에 중심을 둔 교수요목에 따라 언어와 내용을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가르치는 총체적인 교수법으로서 1990년대

1) 난민은 『난민법』 제2조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제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2) 난민심사에 활용되는 통역인은 언어 수준에 따라 준난민통역인, 난민통역인, 난민전문통역인으로 구분되며 본 논문에서는 법무부에서 선발된 난민전문통역인과 거주 외국인 및 난민심사 이후의 사법절차에 지원되는 법정 통역인(법원 선발)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후 학습자 중심 교수법의 틀 속에서 과제 중심 교수법과 함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본 교수법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이 학습자가 지닌 언어 능력이므로 국내의 일반적인 외국어 교육에서는 크게 확산이 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언어를 도구로 하는 이상적인 외국어 교수 방법이므로 외국인 학생 전용 교과목에 도입한다면 효율적인 수업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역인을 학습자로 한 다문화 사회 통합 교과목 수업을 연구 방법으로 삼아 CBI의 효과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통역 수업에서 다문화 사회통합 교과목을 필수로 수강하는 이유는 국내의 난민법 이해와 거주 외국인의 사법절차 공정성과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최근 법무부는 현 난민제도의 문제점인 체류 연장을 위해 남용하는 사례와 난민 신청의 급증으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³⁾와 이의신청⁴⁾,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사법절차의 장기화에 대해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⁵⁾ 예컨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제5조에 따르면, “난민 신청 단계부터 통·번역 지원 등 난민 신청자가 난민 신청 사유와 박해 상황을 충분히 주장하고 [중략]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본 개정안은 난민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난민의 언어를 통역하는 통역인과 거주 외국인의 범죄를 포함한 난민심사 이후에 발생하는 사법절차 통역을 수행하는 법정 통역인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연수를 의무화하게 한 것이다.⁶⁾

3) 난민인정절차는 난민신청자가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거나 외국인이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난민인정심사는 난민이 선택한 언어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4)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받고 난민 불인정을 받은 경우는 난민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받는데 필요하다면 해당 사유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5) 법무부 보도자료,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https://www.moj.go.kr/>, 총 25쪽.

6) 각 연수는 난민전문통역인과 법원 통역인으로 위촉되기 위한 의무사항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학습자 중심의 특수 목적 외국어 수업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 중심 교수법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확대될 온라인 수업의 방향에 대한 탐색 및 논의를 열고자 한다. 둘째, 새로운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며 난민과 거주 외국인 관련 정책에 따른 동향을 공유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배경

본 연구의 가설은 우선, 비대면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원격 수업, 연수, 줌 화상회의를 통한 온라인 수업 방법이 외국인 학습자 대상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중심 교수법으로 모색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다. 이로써 제 2언어 교육, 외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다문화 교육에서 관련 법제를 근거로 한 사회적 동향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난민 신청자의 증가 추세에 따른 조치와 향후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권의 계획에 대한 인식 확장에 있다.

2.1. 온라인 수업의 방향

에듀테크의 교수/학습 환경은 COVID-19로 인한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비대면 원격교육과 학습⁷⁾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

에 포함됨.

- 7) 원격교육과 학습에 대한 개념은 블렌디드 러닝, 상호작용, 모바일 학습, 분산학습, 이러닝, 가상학교, 공개교육 등과 혼용해서 사용되는 측면이 있음. 예컨대, 본 연구에서는 “학습 집단이 분리되고 학습자, 자원, 교사를 연결하기 위하여 상호작용적인 전자통신 시스템이 사용되는 기관 기반의 형식교육”의 정의를 제안함. Simonson, Smaldino, Albright, Zvacek(2012), p.34 재인용. Rita C, Richey, 이현우, 임규연, 정재삼, 허희옥 공역 (2020), 교육공학 용어해설, 학지사. p.147.

른 현장 교육은 체계적인 이론과 효율적인 실무에 대한 경험이 필요해지고 있다. 예컨대 외국어 교육에서는 구성주의 접근을 포함한 온라인 교육 설계를 위한 이론적 모델과 실제적 학습이 운용되고 있고 줌(Zoom)을 포함한 온라인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구축되며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지식 전달이 수업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비대면 교육 방법은 대면이 확대되는 사회로 전환이 되더라도 온/오프라인을 절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포함하여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그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온라인 교육과 학습의 시도는 다각도에서 실험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수업 내용에 대한 교수법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외국어를 도구로 특수하고 개별적인 교과 내용의 경험 사례를 분석하여 학습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이론적인 프레임워크가 절실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 교수법에서 학습자가 전문적인 내용 영역을 학습함과 동시에 언어를 부수적으로 학습하는 온라인 기반 내용 중심 교수법의 적용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2.2. 내용 중심 교수법(CBI)

본 교수법은 Krashen의 이해 가능한 입력 이론⁸⁾과 Swain의 이해 가능한 출력⁹⁾ 그리고 Cummins의 개인 의사소통 기술을 바탕으로 인지적 학문을 위한 언어 능력 층위 학습 이론¹⁰⁾에서 출발하였

8) 제2언어 학습은 어휘 암기와 문법 학습[형태]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입력[의미]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는 주장임.

9) 의사소통 능력 학습을 위해서는 언어 산출 즉, 제2언어를 학습자가 직접 사용해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10) 통상적으로 1-2년간의 외국어 학습 기간에는 일상생활 대화와 맥락 의존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반면, 외국어 학습이 5-7년 정도 소요되면 맥락 의존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학습자는 분석적인 사고와 가설 설정을 할 수 있고 학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 주장임.

다. 이후 CBI 초기형태는 1970년대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습할 내용을 통해 언어를 습득하는 원리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몰입교육, 이민자 교육, 특수 목적의 언어 교육 등에 활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적용을 엄밀한 의미의 내용 중심 교수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이론적 정립과 적용은 1980년대 의사소통 접근법의 등장 이후이며, 1990년대에 과제 중심 접근법과 함께 본격적으로 교수 모형이 수업에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달 과정에 따라 오늘날의 CBI는 내용과 언어와의 통합의 정도에 따른 여러 양상의 모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내용 중심에 초점을 맞춘 내용 보호 교수 모형과 언어 중심에 초점을 맞춘 주제 중심 교수 모형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병존 언어 교수 모형이 있다.

병존 언어 교수 모형은 언어 과정과 내용 과정을 동시에 학습하는 것으로 본 연구자가 경험한 세 번의 통역인 연수 수업사례와 일치한다. 연수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하여 언어 과정은 통역대학원 교수가 담당하고, 다문화 사회 통합 과정은 법무부 직원의 강의로 진행되어 팀티칭 형식을 갖추었다. 또한 법원이 주관한 법정 통역인 연수에서는 통역대학원 교수와 변호사가 담당하는 과목인 사법절차 등의 내용이 언어와 연계한 수업으로 설계되었다.

2.3. 다문화 사회와 난민

한국은 미래의 다문화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존의 거주 외국인 이외에도 난민을 포함하여 국내 인식과 국제적 정책 차원의 논의를 다각도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다문화 사회전문가 및 관련 통역인 양성 프로그램의 방향성에도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2.3.1. 국제적 연대의 난민법

최근 법무부의 보도자료¹¹⁾에 의하면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01년이 되어서야 최초의 난민을 인정하면서 실질적인 난민협약 가입국이 되었다. 이후 2006년에 NGO 단체인 난민 정책 개선 모임의 주도하에 난민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2009년에는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2013년에는 독립된 난민법이 제정되고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아시아 최초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난민법 실천에 관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난민법은 국내 로컬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사안으로 인식되고 국제적인 동향에 따라 2020년 12월에 난민법의 일부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다.

현재 유럽연합의 난민 정책은 각국의 독자적인 난민법과 더불어 회원국 간의 공통적인 연대와 대처에 기반한 더블린 조약¹²⁾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주요 골자는 난민이 첫발을 디딘 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해야 하고 해당 국가가 난민 인정심사를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프랑스는 18세기에 인권 관련법¹³⁾을 통해 이민자와 난민을 이주민의 틀 속에서 다루고 있으며 현행 이주민법은

11)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위한 보도자료.

12) 1997년에 발효된 이 조약은 이후 개정을 거쳐 EU 28개 회원국과 비유럽연합 4개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이 전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13) 1793년 6월 24일 제1공화국 헌법을 선포한 프랑스는 시민과 인권을 향유하는 것이 근본임을 주장하며 제1조에서 “사회의 목적은 공동의 행복에 있다. 정부는 자연적이고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어야 한다”. 제3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로 기술되어 있음. 특히 <프랑스 공화국과 외국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118조에서 제121조 중 제120조에서는 “자유를 위해 추방당한 외국인에게 피난처를 제공한다”가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난민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최초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음.

2015년과 2018년 9월 10일에 다시 일부 개정하여 ‘이민, 효율적인 난민, 성공적인 통합’ 을 목표로 한 법을 시행 중이다.¹⁴⁾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과 연대에서 한국은 난민법을 부분 개정하면서 미래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난민을 포함한 구성원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난민의 언어와 사법 분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증가하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과정과 난민인정 이후의 체류, 취업, 처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난민 언어를 구사하는 전문통역인의 보수 교육에서 변화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¹⁵⁾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 및 난민심사 이후의 추가적인 사법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에서 선발하는 법정 통역인의 직무와 역할에서도 다문화 사회의 현황과 통계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2.3.2. 한국의 현황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다문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원인 난민에 대한 국내 인식은 인권과 우려 섞인 시선¹⁶⁾이 공존하고

14) 본 법안의 시작은 1945년 11월 2일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관련 규칙이며 1993년부터 2003년까지는 그 어떤 개정도 없이 유지되었고 2005년에 개정됨. 이후 2007년 11월 20일에 다시 일부 개정하여 “이민, 통합, 난민” 관련법으로 재탄생함. 현행 난민법제는 소위 <이주민법>이며 468페이지 분량의 『이주민의 입국과 체류 및 난민법』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ou CESEDA)임. [https://www.legifrance.gouv.fr/Journal officiel électronique authentifié n° 0209 du 11/09/2018\(pdf 파일 번역\)](https://www.legifrance.gouv.fr/Journal officiel électronique authentifié n° 0209 du 11/09/2018(pdf 파일 번역))

15) 관련 연수에서 법무부 실무자의 강의 중 난민전문통역인의 역할이 난민심사과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난민의 정착에 대한 언어 지원으로 확대될 것임을 소개함.

16) 2018년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했으며 이를 계기로 난민 수용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음. 예컨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올라와 7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듣기도 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청원시작

있는 국제사회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¹⁷⁾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난민의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안임은 틀림없다.

예컨대 법무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하는 252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준(準)다문화 사회¹⁸⁾로 법무부가 주관하는 다문화 사회전문가 교육과 더불어 난민전문통역인 교육에서도 난민의 위상을 다문화 사회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무부는 총 29개 난민 언어에서 205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을 선발·위촉하여 외부 통·번역 기관에 수탁한 뒤 평가 및 보수교육을 통해 통역의 품질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법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세에 맞추어 그들의 사법 통역을 담당하는 통역인을 선발하고 해당 통역인에게 정기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언어뿐만 아니라 다문화 관련 내용을 인지하는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 통역 수업은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졌으나 2020년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원격 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언어 교수법이 적용되었다. 이 수업은 통역인으로서 언어 능력 함양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을 위한 외국어 교육의 일환으로 내용과 언어를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능력 신장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2018-06-13 청원마감 2018 -07-13]; 참여인원 : [714,875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navigation=best-petitions>
“청원 답변 42호” [청원 답변일 2018. 08. 0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answer?page=12>

17) 예컨대, 프랑스의 사회 풍자 주간지인 『샤를리 엡도』에서 모하메드를 풍자한 만화를 게재한 후 발생한 테러 사건과 중학교 역사 교사인 사뮈엘 과티의 살인사건에 대해 대부분 프랑스인들은 충격을 받았고 관용 정책을 허용하는 범위와 원칙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됨. 또한 범인이 이슬람 출신의 난민 청년임을 전격적으로 공개함.

18) 통상 외국인의 비율이 5%를 상회할 때 다문화 사회로 분류되므로 한국은 목전에 있음.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Vol. 51(2020), “숫자로 보는 출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4-35쪽.

한 상황이다. 이를 위하여 줌(Zoom) 화상회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통역인 대상 원격강의가 설계되었고 본 연구자는 법무부와 법원에서 실시한 연수 프로그램¹⁹⁾을 중심으로 한 경험연구를 관찰하여 연구의 분석 도구로 선정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첫째, 연구 자료에서는 미래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 형성과 정책에 따른 거주 외국인 및 난민의 언어 통역인 자료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통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분석에서는 난민전문통역인 대상 2019년 대면 연수와 2020년 온라인 연수를 살펴보고 체류 외국인의 사법 통역을 담당하는 법정 통역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0년 온라인 연수도 다룰 것이다. 양 연수의 성격이 통역 언어에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나, 내용 측면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양상의 병존 언어 교수 모형으로 고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 연구 자료:난민전문통역인과 법정통역인

2020년 8월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²⁰⁾에 따르면, 1994년 이후 난민 신청자는 70,254명이며, 심사 결정 종료자는 32,097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 1,063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2,338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총 3,401명이 난민인정(보호)를 받고 있다.

19) 본 연구에서 연구 자료로 활용되는 연수는 다음과 같음:2019년 법무부 주관 오프라인 연수(2019년12월20일), 2020년 법무부 주관 온라인 연수(2020년7월31일), 2020년 법원 주관 온라인 연수(2020년12월7일-12월20일).

20) 자료 출처:법무부.

난민심사를 진행하는 난민전문통역인의 지위는 『난민법』 제14조(통역)과 『난민법 시행령』 제8조(통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표 1 난민법>²¹⁾

제14조 (통역)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	---

<표 2 난민법 시행령>²²⁾

제8조 (통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하 “난민전문통역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자 면접 과정에서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性)의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난민전문통역인이 없거나 긴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역하게 할 수 있다. 1.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다른 외국 언어로 1차 통역하게 한 다음 그 외국 언어를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한국어로 2차 통역하게 하는 방법 2.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사람에게 통역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통역하게 하는 방법
	④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을 담당한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난민전문통역인의 교육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난민인정 심사²³⁾ 시 예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

21)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08호; 2016.12.20. 일부 개정, 출처:법무부

22)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08호; 2016.12.20. 일부 개정, 출처:법무부

고 있다. 난민 통역인의 자격이 세 가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 기준은 해당 언어의 실기 능력이며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역량으로는 정확한 통역을 위해 필요한 배경 지식과 윤리의식이다.

<표 3 자격 상세 기술표>²⁴⁾

자격	정의	실기능력	배경지식	윤리의식	활용여부
난민전문통역인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대화통역, 순차통역, 시역을 내용의 정확성, 도착어의 유창성, 전달력을 갖추고 수행할 수 있다	난민심사, 통역기초, 국제문화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추고 있다	통역인의 역할과 책임, 통역인의 전문성, 난민신청자 중심의 의사소통에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다	활용에 제한이 없다
난민통역인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난민전문통역인이 없거나 긴박한 경우에 난민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통역을 하는 사람	대화통역을 내용의 정확성, 도착어의 유창성, 전달력을 갖추고 수행할 수 있다 순차통역과 시역은 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대화통역에만 활용하고, 순차통역과 시역 교육을 적극 권장한다
준난민통역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난민전문통역인 또는 난민통역	대화통역, 순차통역, 시역을 수행하는데 내용의 정확성, 도착어의			제한적인 활용 권고한다. 통역을 위한 언

23) 난민 인정 심사의 의사소통은 난민 면접관, 난민 신청인, 난민 통역인의 면대면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짐.

24) 출처: 2019년 난민전문 통역인 연수 자료.

인	인이 없거나 긴박한 경우에 난민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에 따라 통역 을 하는 사람	유창성, 전달 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숙달과 집중 통 역 교육 을 적극 권장한다
---	---	-------------------------------------	--	--	--------------------------------------

다음으로, 사법통역을 담당하는 법정 통번역인의 법적 근거는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²⁵⁾에 있다. 구체적인 자격 인증 기준²⁶⁾에 따르면, 법률 지식 측면에서 법정 통번역, 재판절차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실기 능력 측면에서는 대화통역, 순차통역, 시역에 대하여 통역 내용의 정확성, 도착어의 유창성과 전달력을 갖추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윤리의식 측면에서는 법정 통번역인의 역할과 책임, 전문성, 재판 당사자 중심의 의사소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끝으로 현장 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

이에 따른 법정 통역의 정의²⁷⁾를 준수하는 실제 법정 통역의 현황²⁸⁾을 살펴보면, 2012년 총계 3,243명과 2017년 4,469명으로 외국인 피고인 수가 증가되었고 법정 통역인의 수도 2012년 1,295명과 2017년 1,873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6년 자료에 의하면 법정 통역인의 언어는 영어(219명), 중국어(342명), 일본어(219명), 베

25) 개정 2020.1.23. <https://glaw.scourt.go.kr>, 주요 내용으로는 1)피의자에게 번역문을 제공하라. 2)통역 준비를 위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라. 3)통역·번역인 인증 평가를 실시하라. 4)통역 품질을 확인하라.

26) 법정통역인의 자격 인증 기준은 인증 법정 통번역인(형사)과 준인증 법정통번역인(형사)로 구분하고 있음. 세부적으로는 법적 근거, 정의, 법률 지식, 실기 능력, 윤리의식 그리고 현장 수행 능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27) 사법절차에서 형사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이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 능력의 결여로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법정에서 제공되는 통역과 번역 서비스.

28) 출처:2020년 법정 통역인 연수 자료

트남어(131명), 몽골어(98명), 러시아어(76명), 기타어(627명)로 볼 수 있다.

3.2. 분석 방법:연수 프로그램

연구자가 관찰한 CBI 기반 관련 연수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4 난민전문통역인 보수교육>(2019년 대면 교육)

시간	내용	비고
1:00~1:50	난민법과 난민정책	배경지식
2:00~3:50	-통역 일반 -대화통역 -지역 -순차통역 -리허설 연습	통역 실기
4:00~5:50	-통역 오류가 심사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 전략 -통역인의 윤리적 태도 (난민 통역인 윤리) -통역인의 현장 행동 분석 -난민 통역인 주의사항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실시된 대면 교육은 법무부의 해당 부처 직원과 통역대학원 교수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이론과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궁극적으로는 통역에 필요한 배경지식과 통역 실기 향상이 세부 목적이었다.

<표 5 신규 난민전문통역인 보수교육>(2020년 비대면 교육)

시간	내용	비고
10:00~10:50	난민기초이론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법률 용어의 이해	배경지식
11:10~12:00	난민통역실무 -난민 면접 시 통역인의 참여 -면접 진술 예	통역 실기
13:10~14:00	통역일반 -기초 통역 기법 -통역의 종류	
14:10~15:00	난민통역의 특수성	
15:10~16:00	통역윤리 및 오류사례	
16:10~16:30	평가 및 나누기	

위의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배경지식 관련 강의는 법무부 회의 디지털 플랫폼상에서 강의식으로 이루어졌고 통역 실기 관련 과목들은 줌(Zoom)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6 2020년 통번역인 교육>(2020년 비대면 교육)

시간	내용	비고 (복습, 수료증)
2020.12.7.~ 2020.12.21	(언어공통)법정통번역 기법	2020.12.7.- 2021.12.21
2020.12.7.~ 2020.12.21	법정통역인 현황 및 직무와 역할	2020.12.7.- 2021.12.21
2020.12.7.~ 2020.12.21	형사재판 절차의 이해	2020.12.7.- 2021.12.21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한 2020년 통번역인 교육은 해당 사

이트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기간에 접속하여 강의를 듣고 시험을 거쳐 수수료증을 발급받는 과정이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우리는 작년부터 온라인 수업에 직면해있고 외국어 교육에서 여러 형태의 수업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탐색해 볼 수 있었다. 예컨대 난민전문통역인과 법정통역인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CBI 이론을 기반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우선, CBI의 장점은 학습자의 직업적인 필요성²⁹⁾이 반영된 내용 영역[다문화 사회통합 교과:난민법, 난민정책, 형사재판]을 학습함과 동시에 언어[통역 교과:이론 및 실제]에 노출되어 실제적 자료 [프랑스어로 된 교과 내용 활용 통역 수업]와 유의미하고 맥락이 있는 내용을 통해 통역 연습이 이루어짐으로써 직업적인 내용과 함께 언어 학습을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CBI 기반 외국어 수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언어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언어와 내용이 통합된 자료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자의 언어 능력에 맞게 학습 자료를 제시하여 배경지식 탐구가 필요하다. 본 연수 프로그램은 내용과 언어 교수자가 각각 해당 영역을 담당한 병존 언어 교수 모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한국의 언어 교육에서 CBI를 적용할 때 설계해볼 수 있는 수업 모형이 될 것이다.

29) 해당 통역인의 직무에 따른 역량은 동일한 언어권이라 해도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변이까지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므로 끊임없이 원어민에 가깝도록 실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고, 난민법과 난민 정책, 난민인정 절차, 형사 재판 절차 등 관련 제반 사항을 공부해야 한다.

특히 언어 교육에서 적용 가능한 교수 모형은 주제중심 수업 활동으로 문자와 구두 언어를 모두 중시하여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에 맞는 내용을 목표언어로 제공하여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귀납적인 방법으로 문법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직업이나 목적을 가진 학습자를 위한 특수 목적³⁰⁾의 언어 교육에 효과가 있어 활용도가 높고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 방식은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또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수업의 유형이 예상되며 CBI의 온라인 언어 교육 역시 하이브리드 교육 방식의 부분적인 적용에 적합한 교육방식이다. 내용을 미리 제시하여 목표언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지식으로 획득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의 CBI 기반 러닝은 한국의 다문화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인구 동향에 따른 장래인구추계³¹⁾를 살펴보면 2050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중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기는 25%이며, 당해연도 외국인 주민의 수는 2018년도의 2백5십만(전체 인구의 약 5%)에서 95.2%가 증가된 4백9십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10%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예측에 대비하고자 한국의 다문화 사회통합 전문가 양성 교육에서는 미래의 다문화 사회를 구성할 난민을 포함한 거주 외국인에 대한 관련 법과 정책을 인식하는 교과가 마련되어야 하며 담당 통역인³²⁾의 양성 및 연수에도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 지역은 난민 통역인 및 법정 통역인의 연수를 맡은 주요 센터³³⁾이므로 그 필요성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30) 무역, 의학, 법학, 여행, 호텔, 제과제빵 등.

31) 출처:2020 법정 통번역인 연수 자료

32) 통역인의 구성 비율에서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해당 외국어의 원어민 또는 이중언어 통역인이 상당수 있고 앞으로 증가할 추세로 보임.

33) 서울, 부산, 광주.

5. 결론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용 중심 교수법(CBI)을 통한 온라인 외국어 수업의 방향을 탐색해보는 것으로서 우리는 다문화 사회 통합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난민에 관한 법제와 정책의 새로운 동향인 난민전문 통역인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법정 통역인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관련 연구 자료를 통해서 특수 목적의 언어 교육이 필요한 학습자 수업에 언어와 내용을 통합하는 CBI 기반 교육 방법과 활동 유형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의 배경으로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개념과 향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언어 교육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진단하고 다문화 사회와 교육의 연구 동향으로서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법을 포함한 거주 외국인의 사법 정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에 필요한 내용을 습득하면서 통역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CBI 접근법의 사례를 고찰하면서 목표언어가 능통한 학습자인 통역인처럼 외국인 전용 주제 중심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역할이 다문화 사회통합 전문가의 양성 프로그램에도 기존의 거주 외국인뿐만 아니라 난민 관련법과 정책, 사법절차에 대한 지식을 강화시키고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통역인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획득한 연구 방법과 결과에 대한 교육적 활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난민의 언어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돕는 관련 법제와 정책에 따른 전문통역인의 역할이 난민심사 절차에서부터 안정적인 통합사회로의 적응까지 확대될 것이며 국내 거주 외국인의 사법 행정 시 언어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법정 통역인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연수기관이 서울에서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2020년부터는 온라인으로 대체되었고 올해 말부터

는 그러한 교육이 전국의 거점 3곳으로 분권이 되면서 중요성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준비로서 외국인 및 다문화 배경 학생의 직업 수요에도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통역인 연수 프로그램에서 내용과 언어를 동시에 가르치는 CBI 방식을 경험하면서 국내 외국어 교육³⁴⁾에 적용하여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공적인 특수 목적의 언어 학습을 위해 여러 모형의 수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이현우, 임규연, 정재삼, 허희옥 공역(2020). *교육공학 용어해설*. 서울:학지사.
- 장니나(2010). 프랑스 이민정책에 따른 이민자 언어-문화 교육 상황과 정책에 관한 고찰-, <지중해지역연구> 제12권 제2호, 지중해지역원, 95~114쪽.
- 전학선(2009). 프랑스의 망명권 보장 법제, <외법논집> 제33권 제3호, 1~27쪽.
- 난민통역 보수교육 자료(2019). 서울:법무부.
- 법정통역인 연수 자료(2020). 서울:법원.
- 신규 난민전문통역인 교육 자료(2020). 서울:법무부.
- Actes du séminaire de Québec.(1998). *La gestion du plurilinguisme et des langues nationales dans un contexte de mondialisation*, Canada: Bibliothèque nationale du Québec
- André de Peretti.(1993). *Controverses en éducation*, Paris:

34)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영어 교육, 중국어 교육, 일본 교육, 프랑스어 교육 등 제반 외국어 교육이 해당됨.

Hachette

- Barel Yves.(1990). *Le grand intégrateur*, Paris: Connexions, n° 56
- Begag Azouz,(2003). *L' intégration*, Paris: Le Cavalier Bleu
- Bruno Karsenti, Cyril Lemieux,(2017). *Socialisme et sociologie*, Paris: Ehess
- Dewitte Philippe,(1999). *Immigration et intégration, L' état des savoirs*, Paris: La Découverte
- Durkheim Emile,(1922). *Education et sociologie*, Paris: Félix Alcan.
- Jean-Pierre Cuq, Isabelle Gruca,(2003). *Cours de didactique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et seconde*, Paris: PUG
- Louis Procher,(2004). *L' enseignement des langues étrangères*, Paris: Hachette
- Louise Dabène,(1994). *Repères sociolinguistiques pour l' enseignement des langues*, Paris: Hachette
- Mayer Nonna,(2016). “Immigrants and politics in France” , <민족연구> 68호, 44쪽~61쪽
- Safi Mima,(2006). “Le processus d' intégration des immigrés en France. Inégalités et segmentation” , *Revue française de sociologie* n° 47-1
- Sandra Garbarino & Christian Ollivier,(2020), “Pratiques plurilingues, apprentissage des langues et numérique” , *Alsic* VOL.23 N° 2.
- Schnapper Dominique,(1991). *La France d' intégration. Sociologie de la nation en 1990*, Paris: Gallimard
- Tribalat Michèle,(1996). *De l' immigration à l' assimilation. Enquête sur les populations d' origine étrangère en France*, Paris: La Découverte

- Vallet Louis-André,(1996). “L’ assimilation scolaire des enfants issus de l’ immigration et son interprétation. Un examen sur données françaises” , *Revue française de pédagogie* n° 117
-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Vol. 51(2020). <숫자로 보는 출입국>, 서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texte_lc/LEGITEXT000006070158/ (프랑스 법무부;검색일자 2021년 1월 4일)
- <https://www.immigration.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검색일자 2021년 1월 11일)
- <https://www.socinet.go.kr> (사회통합정보망;검색일자 2021년 1월 11일)
- <https://www.hikorea.go.kr> (하이코리아;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검색일자 2021년 1월 12일)
- <https://www.moj.go.kr/> (법무부;검색일자 2021년 1월 14일)
- <https://www.insee.fr/> (프랑스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검색일자 2021년 1월 14일)
- <https://www.immigration.interieur.gouv.fr/Asile/Le-droit-d-asile> (프랑스 내무부;검색일자 2021년 1월 16일)
- <https://www.legifrance.gouv.fr/>;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pdf 파일)(프랑스 법무부;검색일자 2021년 1월 16일)
- <https://www.ofpra.gouv.fr/> (프랑스 난민·무국적자 보호사무국;검색일자 2021년 1월 16일)

필자 소개

성 명 : 장니나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주 소 : 부산광역시 [46234]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전화번호 : 010-8884-7213

전자우편 : jazzinred@naver.com

투고일: 2021. 10. 20 / 심사일: 2021. 11. 19 / 심사완료일: 2021. 11. 26